

말의 결

존중을 만져보다

무심코 사용하는 말 속 차별과 편견의 결을 바꾸어, 존중의 언어를 연습하는 촉각형 인권 문구 키트

- 촉각형 문구 키트
- 인권 교육 도구
- 재생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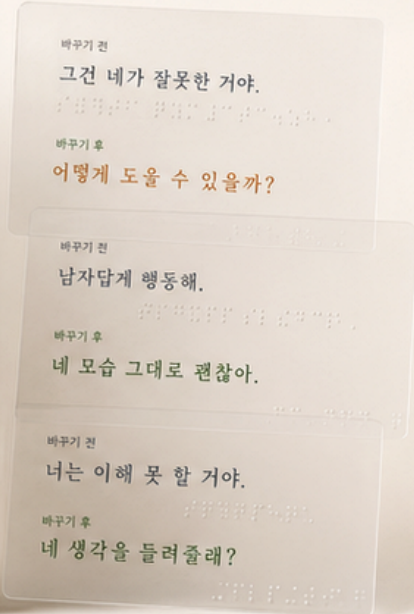
2026 인권 공모전 굿즈 디자인

말의 결

존중을 만져보다

무심코 사용하는 말 속
차별과 편견의 결을 바꾸어,
존중의 언어를 연습하는
촉각형 문구 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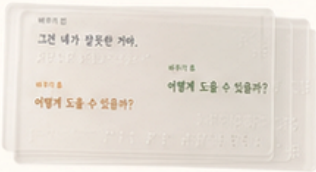
- 점자 표기
- 촉각 가이드 라인
- 등근 모서리
- 재생지 사용



구성품



점자 노트
점자와 촉각 라인으로
존중의 방향을 안내



메시지 오버레이 카드
표현을 겹쳐 '바꾸기 전·후'
비교로 배우고,
새로운 말을 연습



북마크
눈금과 점자 표기로
책갈피와
촉정 도구로 사용



스티커 시트
존중의 표현과
다양성을 담은
아이콘 스티커



패키지
재생지로 만든
친환경 패키지에
모든 구성품을 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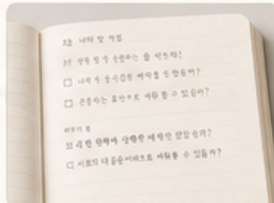
사용 방식



① 상황을 적어요
일상 속 말이나 상황을
자유롭게 적습니다.



② 카드를 겹쳐 비교해요
오버레이 카드를 올려
바꾸기 전·후 표현을
비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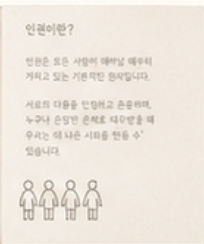


③ 존중 표현으로 바꿔요
더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해
직접 써보며
연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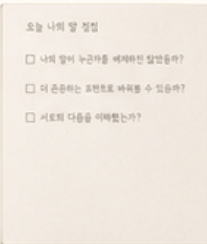
내지 구성



점자 육자



인권 가이드



나의 말 점검



존중의 말 아이디어



스티커 활용 페이지

접근성 포인트

- 점자 표기
주요 정보 형식 표기로
정보 접근성 강화
- 촉각 가이드 라인
표지의 곡선 라인으로
방향성과 촉각 경향 제공
- 등근 모서리
모서리를 둥글게 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사용
- 재생지 사용
재생지로 제작하여
환경까지 생각하는 제품

패키지



- A5 노트 (148×210mm)
- 재생지 100%
- 친환경 PET
- 공기를 링크
- 플라스틱 Free

- FSC 인증 목재
- 친환경 PET
- 용기를 링크
- 플라스틱 Free

핵심 심사 포인트

- 언어 전환성
차별적 표현을 존중의 언어로 바꾸는 실천형 구조
- 접근성 설계
점자, 촉각선, 등근 모서리, 고대비 색상 적용
- 제품 완성도
노트·오버레이·북마크·스티커·패키지의 일관된 시스템
- 확장 가능성
학교, 공공기관, 직장, 지역사회 인권교육으로 확장

말을 바꾸는 작은 연습이, 사람을 존중하는 큰 변화가 됩니다.

구성품과 사용 방식

읽는 굿즈가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문장을 겹쳐 보고 다시 쓰는 행동형 굿즈로 설계했다.

구성품 5종



- 점자 노트

표지 양각 점자와 촉각 가이드 라인으로 손끝의 방향을 안내
- 메시지 오버레이 카드

바꾸기 전/후 문장을 겹쳐 비교하는 핵심 도구
- 북마크자

책갈피와 자 기능을 겸한 점자 표기 도구
- 스티커 시트

존중 표현과 다양성 아이콘을 기록에 활용
- 재생지 패키지

플라스틱 없이 구성품을 담은 친환경 패키지

내지 구성



- 오버레이 카드 12개 주제

책임 전가 · 성별 고정관념 · 배제 · 외모 평가 · 장애 인식 · 나이 차별 · 가족 형태 · 출신과 배경 · 감정 무시 · 경제적 상황 · 일터와 관계 · 혐오 표현

사용 방식 3단계



- 1

상황을 적는다

오늘 들었거나 내가 사용한 말, 불편했던 표현, 바꾸고 싶은 문장을 노트에 적는다.
- 2

카드를 겹쳐 비교한다

오버레이 카드를 노트 위에 올려 바꾸기 전/후 표현을 한눈에 비교한다.
- 3

존중의 말로 다시 쓴다

더 안전하고 평등한 표현을 직접 써보며 자신의 언어 습관을 점검한다.

오버레이 카드 예시

- 그건 네가 잘못된 거야.
→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남자답게 행동해.
→ 네 모습 그대로 괜찮아.
- 너는 이해 못 할 거야.
→ 네 생각을 들려줄래?

농담인데 왜 예민해?
→ 상처가 됐다면 다시 말할게.

전면·측면·후면 시안

필수 제출 조건을 충족하도록 주요 구성품의 전면, 측면, 후면을 분리해 제시한다.

1. 점자 노트

...

말의 결

존중을 만져보다

전면

측면

말을 바꾸는 작은 연습이; ... 사람을 존중하는 큰 변화가 됩니다.

제상지 100% / 동근 잉크 / 점자 양각 / 플라스틱 Free

후면

표지 양각 점자, 촉각 가이드 라인, 올리브색 밴드, 둥근 모서리를 적용해 손끝으로 방향성과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다.

크기: 148 × 210mm / 표지: 재생 보드지 + 형압 + 점자 양각 / 내지: 인권 가이드, 오늘 나의 말 점검, 존중의 말 아이디어

2. 메시지 오버레이 카드

바꾸기 전

그건 네가 잘못된 거야.

바꾸기 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

전면

측면

바꾸기 전

그건 네가 잘못된 거야.

바꾸기 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

후면

투명 카드 위에 바꾸기 전/후 문장을 겹쳐 보여준다. 사용자가 노트 위에 올려 표현의 차이를 직접 비교하도록 만든 핵심 장치다.

크기: 130 × 80mm / 재질: 친환경 PET / 가공: 둥근 모서리, 반투명 레이어, 점자 일부 적용

3. 재생지 패키지

말의 결

존중을 만져보다

.....

전면

측면

말을 바꾸는 작은 연습이; ... 사람을 존중하는 큰 변화가 됩니다.

제상지 100% / 동근 잉크 / 점자 양각 / 플라스틱 Free

후면

재생지 박스와 종이 밴드 구조로 구성품을 담는다. 전면에는 작품명과 점자 표기를, 후면에는 사용 방법과 소재 정보를 배치한다.

크기: 230 × 170 × 40mm / 재질: 재생지 박스 / 포장: 종이 밴드 / 방향: 플라스틱 Free

말을 바꾸는 작은 연습이, 사람을 존중하는 큰 변화가 됩니다.

제작 사양·패키지·확장 활용

단순 기념품이 아니라 학교, 공공기관, 직장, 지역 커뮤니티에서 반복 활용 가능한 인권교육 키트로 확장한다.

제작 사양

점자 노트	148×210mm(A5) / 재생지 100% / 표지 형압·점자 양각 / 무선 또는 양장 제본
오버레이 카드	130×80mm / 친환경 PET / UV 인쇄 / 둥근 모서리 / 반투명 레이어
북마크자	30×160mm / 재생 PET 또는 재생지 보드 / 책갈피·자 겸용 / 점자 눈금
스티커 시트	100×140mm / 재생지 스티커 / 콩기름 잉크 / 말풍선·인물 아이콘
패키지	230×170×40mm / 재생지 박스 / 종이 밴드 / 점자 표기 / 플라스틱 Free

인쇄·후가공 체크리스트

● 형압/점자 양각 표지와 패키지 주요 정보에 손끝으로 읽히는 점자 적용	● 라운드 커팅 카드와 패키지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해 안전성 강화
● 색상 접근성 저채도 배경 위 고대비 텍스트로 가독성 확보	● 친환경 포장 비닐 포장 없이 종이 밴드와 재생지 박스 사용

패키지 오픈 컷



접근성·지속가능성

- **점자 표기**
주요 정보와 작품명 일부 점자 양각 적용
- **촉각 라인**
표지 곡선 라인으로 방향성과 촉각 경험 제공
- **둥근 모서리**
카드·노트·패키지 안전성 강화
- **재생 소재**
재생지, 친환경 PET, 콩기름 잉크 사용

활용 가능성

학교	인권교육 수업, 학급 언어문화 개선 활동, 또래 관계 회복 프로그램
공공기관	민원 응대 교육, 직원 인권 감수성 워크숍, 캠페인 기념품
직장	조직문화 개선, 성희롱·괴롭힘 예방 교육, 포용 언어 워크숍
지역사회	다문화·장애·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 시민 참여형 인권 캠페인

최종 메시지
인권은 멀리 있는 선언이 아니라, 오늘 내가 건네는 한 문장에서 시작된다.

분 류

□ 액세서리 □ 공예품 □ 그림/소장품 □ 패션잡화 □ 의류 ■ 생활소품
■ 문구사무 □ 기타

작 품 명

말의 결 - 존중을 만져보다

작품크기

23cm X 17cm X 4cm ※ 패키지 기준

A5 점자 노트 14.8cm X 21cm / 메시지 오버레이 카드 13cm X 8cm /

북마크자 3cm X 16cm / 스티커 시트 10cm X 14cm

작품설명

말의 결은 일상 속 무심코 사용하는 말에 숨어 있는 차별과 편견을 발견하고, 이를 존중의 언어로 바꾸어 연습하는 촉각형 인권 문구 키트이다.

인권침해와 혐오는 거창한 사건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그건 네가 잘못된거야”, “남자답게 행동해”, “너는 이해 못 할 거야”처럼 익숙하게 쓰이는 말 속에도 상대를 배제하거나 고정관념 안에 가두는 표현이 숨어 있다. 본 작품은 이러한 말의 결을 사용자가 직접 만지고, 겹쳐 보고, 고쳐 쓰는 과정을 통해 인권 감수성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설계되었다.

구성품은 점자 노트, 메시지 오버레이 카드, 북마크자, 스티커 시트, 재생지 패키지로 이루어진다. 점자 노트는 표지에 양각 점자와 촉각 가이드 라인을 적용해 손끝으로 방향과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내지에는 ‘오늘 나의 말 점검’, ‘존중의 말 아이디어’, ‘인권 가이드’ 페이지를 배치했다.

메시지 오버레이 카드는 투명 재질 위에 ‘바꾸기 전’과 ‘바꾸기 후’ 문장을 겹쳐 보여주는 핵심 도구다.

본 굿즈의 강점은 인권 메시지를 단순히 읽는 데서 끝내지 않고, 사용자의 손과 행동을 통해 직접 연습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투명 카드를 노트 위에 올리고, 문장을 비교하고, 더 나은 표현을 직접 써보는 과정은 인권을 추상적 구호가 아닌 일상 속 실천으로 바꾼다.

※ 예시 오버레이 카드

바꾸기 전	바꾸기 후
그건 네가 잘못된 거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남자답게 행동해.	네 모습 그대로 괜찮아.
너는 이해 못 할 거야.	네 생각을 들려줄래?
장애가 있는데 가능해?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함께 맞춰볼게.
농담인데 왜 예민해?	상처가 됐다면 다시 말할게.

접근성·지속가능성

점자 표기, 촉각 가이드 라인, 등근 모서리, 고대비 색상, 쉬운 그림 구조를 적용해 다양한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재생지 100%, 친환경 PET, 콩기름 잉크, 플라스틱 Free 패키지를 사용하여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했다.

활용 가능성

학교 인권교육, 공공기관 인권 캠페인, 민원 응대 교육, 직장 내 조직문화 개선, 지역 커뮤니티 대화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매일 쓰는 노트 한 페이지에서 자신의 말을 돌아보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표현을 선택하며, 더 안전하고 평등한 관계를 만드는 언어 습관을 익히게 된다.

말을 바꾸는 작은 연습이, 사람을 존중하는 큰 변화가 됩니다